大學博物館의 現況

安　　承　　周*

目　　次

Ⅰ. 서　언
Ⅱ. 대학박물관의 성장
Ⅱ. 대학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Ⅳ. 대학박물관의 시설
Ⅴ. 대학박물관의 자료소장과 공개
Ⅵ. 대학박물관의 예산과 재정
Ⅴ. 결론 및 제언

Ⅰ. 서　언

한국의 대학박물관은 대학 본연의 사회 문화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체로서 학내외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각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의 요망이기도 하며 대학이 대학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당위성과 직결된 때문이기도 하였다. 돌이켜 한국 대학박물관의 발전사를 살펴볼 때 해방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은 "태동에서 발돋움" 혹은 "가능성을 시험받은 기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 기간동안 대학박물관은 제도적인 장치나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착실히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이제는 대학박물관의 존재가치와 설치의 당위성을 충분히 입증할만큼 쌓아놓은 업적도 지대하며 또한 대학박물관에 거는 사회의 기대도 막중한 실정이다.

명실공히 이 시점은, 기대와 존재가치를 인정받은 대학박물관이 새로운 도약대 위에서 목적하는 보다 적극적 활동을 서두를 때인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장한 유물의 양이나 이루어 놓은 조사연구의 폭, 사회 교육·문화적인 기능의 깊이 등에 비할 때 대학박물관을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여러 조처들은 아직도 준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그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대학박물관 자체의 문제점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마침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의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점에서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뜻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본고는 이같은 인식바탕 위에서 대학박물관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제기·노출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준비된 것이다. 본고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됨으로써 대학박물관운영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 公州師範大學 博物館長

다면 더없는 다행이겠다.

본고에서 논의되는 현황과 문제점 제시는 대학박물관협회에 가입된 58개교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설문에 응답 회신한 학교는 58개교중 50개교였다. 본고의 모든통계와 분석은 회신된 이들 50개교의 설문응답을 토대로 하였다. 바쁘신중에도 협조해주신 회원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글의 내용은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문제점」에 제한되며 함께 다루어어할 대학박물관의 기능과 역할문제는 별도의 주제로 발표될 것이므로 제외하였다. 이 부면의 상세한 논의들은 허선도교수(주제 : 교육적기능과 사명), 이용조교수(주제 : 학술적기능과 사명), 정영화교수(주제 : 사회·문화적기능과 사명)의 글과 발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Ⅱ. 대학박물관의 성장

(1) 대학박물관의 증가추세

한국대학박물관의 설립은 그 효시를 1934년 고대려의 전신이었던 普成專門學校가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유물을 수집전시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해방 전의 대학박물관은 현재와 같은 시설이나 조직운영의 면에서 보면 빈약하기 짝이없는 것이었고, 그 수도 보성전문학교(1934년), 이화여자전문학교(1935년),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전신의 京城帝大博物館(1941년)의 3개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 대학박물관은 다음 〈表 1〉에서 보는 바처럼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많은 대학에 박물관이 설치되는 추세는 1967년 문교부의 대학교육기준령과 1970년의 개정대학설치령에서 대학박물관의 규모가 규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다.

〈表 1〉 대학박물관의 증가추세

해 방 전	해방후~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무 응 답
3개교	5개교	17개교	14개교	11개교	7개교

(*이하 表의 통계는 설문응답 50개교 기준)

당시 문교부의 박물관 설치기준은 주로 종합대학교를 대상한 것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는 것이었으나, 당시 사회의 문화 교육적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고, 이에 따른 대학박물관의 숫적 증가는 여러 형태의 문화유적 발굴이나 조사를 활발하게 하였고 부수적으로는 현재 활동하는 박물관요원의 배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한편 현재 대학박물관협회에 가입한 58개교중 과거의 설치령에 의거 설립된 대학박물관은 반수에도 못미치는 26개교에 불과하며, 나머지의 경우는 학칙에 의한 것이거나 임의기관이다. 결국 제도적인 의무 설치기관이 아닌 상태로 각 대학박물관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충분한 재정적

인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극적인 활동을 하게되어 있는 것이다.

(2) 대학박물관의 발전

이처럼 제도적 장치나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날로 대학박물관이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그 기능폭이 확대되는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결과는 현실적으로 당면한 여건의 성숙 미성숙과는 별개로 우선 대부분의 대학박물관 요원들이 헌신적으로 사명을 수행하여 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의 대학 혹은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의 필요성이 대학박물관을 이만큼 성장하게 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대학은 지성의 상아탑이라는 관념에만 매어있을 수 없으며,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화중심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요망되는 터이다. 그중에서도 대학박물관은 지역문화의 전승자로 발굴이나 조사 연구의 핵심적 존재로 위에든 기능을 담당한 주체였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박물관장을 비롯한 박물관운영요원만이 이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의 당국과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향이 없지 않는 것 같으나 이는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박물관의 활동에 의해서 각 대학의 존재가치가 부각되고 되살아나는 경우가 오히려 많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학박물관이 현재 계속 증가되는 현상이나, 여건의 불비속에서도 의욕을 보여주는 현상들은 바로 위와 같은 존립의 필요성에 기인하거나 그 기능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고 싶다. 이같은 모습들은 대학박물관이 이제껏 수행해온 지역문화 중심체로서의 활동상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박물관들은 대체로 각기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운영(사업)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이미 종합박물관으로서의 체계와 수장품을 갖춘 유수한 대학박물관을 논외로하고라도 지방에 산재한 각 대학들은 거의 모두가 지역적 특성을 살린 유물수집과 정리를 계획 또는 실시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동아대학교(가야유물), 부산대학교(가야토기·청동기시대 옹관), 경상대학교(서부경남의 선사·가야유물), 부산여대(가야옹관·토기), 계명대학교(선사토기 가야토기), 영남대학교(가야고분유물·통일신라와당), 창원대학(낙동강서안 선사유물), 공주사대(백제토기), 한남대학교(백제토기), 공주교대(백제와당), 충남대학교(백제토기), 군산대학(서해안 전통어구), 목포대학(서남해안 선사유물), 강릉대학(강원지역 선사유물) 등이 그 예이고, 대학의 설립목적에 맞게 특별한 유물을 집중수집·전시하는 경우로 홍익대학교(조선시대회화·근대미술품) 성균관대학교(유교관계유물), 숭실대학교(기독교관계자료), 육군사관학교(군사관계유물) 등도 있다

서울 경기지방에 소재하여 지방문화자료를 특색있게 수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각 대학박물관은 독자적인 유물수집을 실시 수장품의 특색을 구상하고 있는데, 세종대학(조선시대 의상·장신구), 덕성여대(여속관련유물), 건국대학교(청동기·수공업도구), 인하대학교(운반·운송도구), 성신여자대학교(서화·고지도·천문도), 경기대학교(재래농기구), 한림대학(신라동물형토기)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같은 대학박물관들의 특색있는 유물수장계획들은 각 지역문화의 성격이나 분야별 전승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정리라는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실로 지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앞에서 지적한 바 처럼 오늘날의 대학이 대학으로서 존립할 당위성·필요성과도 통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Ⅲ. 대학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대학박물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케하는 요소로서 우리는 인적자원과 재정문제를 우선생각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이 두 요소는 박물관의 사업(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과연 대학박물관의 현실정이 어떤 정도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절에서는 우선 첫번째의 인적구성과 운영면을 ① 관장 ② 운영위원회 ③ 전임직(학예직과 사무직) ④ 전임직원의 연수와 교육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기로 하겠다.

(1) 박물관장

박물관의 행정책임자인 관장은, 활동(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표자이다. 따라서 관장의 전공분야나 학내의 비중, 강의부담 등은 그대로 현재 대학에서의 박물관의 비중과 위치를 읽는데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된다.

1) 직위 및 연령 : 관장의 직위는 교수가 70% 부교수가 24%로서 교수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50개교의 설문응답교중 16개교의 관장이 교무위원을 겸직하거나 다른 보직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었다(12개교).

관장의 평균연령은 54세로 나타나며, 40대가 17명, 50대가 17명, 60세 이상이 11명이었다.

2) 강의부담 : 대개 현임관장의 강의부담은 9시간이나, 6시간 이하인 경우는 4개교에 불과한 반면 10시간 이상이 14개교나 되었다. 이러한 강의부담은 특히 전공영역으로서 박물관을 직접 운영하고 활동을 전개하는데 적지 않게 장애가 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 학술조사나 발굴이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같은 강의부담과 연관된다.

3) 전공분야 : 관장의 전공분야는 대체로 그 대학 박물관의 활동이나 성격을 예견케 하는 것으로서 매우 주목되는 사항이다. 현임 관장의 전공별 분포를 설문응답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 〈表 2〉와 같다.

〈表 2〉 관장의 전공분야

구 분	고고학	미술사	한국사	민속학	국문학	사학 (동서양사)	기 타	무응답
현임관장	11 (22%)	2 (4%)	14 (28%)	2 (4%)	5 (10%)	8 (16%)	7 (14%)	1 (2%)
전임관장	9	2	14	1	6	3	6	9

대체로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박물관이 한국의 전통문화 자료를 수집 전시하는 현실에서 볼 때,

이와 직접 관련된 전공자들 고고학·미술사·한국사가 27명(54%)으로 이들 주 전공자가 관장직을 맡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의 행정책임자들이 관장임명에 있어, 일차적으로는 전공자를 우선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인접분야 전공자를 선임하는 기본적 배려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재 각 대학박물관의 주요사업과 활동이 고고미술사적인 부면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에서 보면 이 분야 전공자의 관장수(고고학 11명, 미술사 2명)는 상당히 미흡한 비중이라고도 생각된다.

(2) 운영위원회

다음으로 실질적인 박물관운영에 있어 관장을 자문하고 돕는 기구로써 운영위원(회)가 거의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대체로 그 인원은 10인 이하(응답 41개교중 36개교)인데, 그들의 전공영역을 주전공 또는 인접분야(고고학·미술사·한국사·민속학·국문학)와 기타로 나누어 본 결과 다음의 〈表 3〉과 같았다.

〈表 3〉 운영위원의 구성

인원				전공분야(기타의 비중)				
6인이하	6~9인	10인이상	무 응 답	1/2이상	1/3~1/2	1/4~1/3	없 음	무 응 답
16	20	5	9	21	4	8	5	12

*전공중 기타는 고고·미술·민속·한국사·국문학을 제외한 분야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타분야전공자가 전혀 없는 대학도 5개교나 되었지만, 21개교가1/2 이상의 다른 분야전공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주목되었다. 한편 이들 운영위원회를 보는 관장의 입장은,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① 적극적 협조와 지원. 15개교(30%)
② 명목상조직, 양해구함. 25개교(50%)
③ 방해 혹은 실질적 도움 한계. 3개교(6%)
④ 무응답. 7개교(14%)

로 평가하고 있어서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학내에 많이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대개 운영계획 심의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가 주된 것이었고, 13개교의 경우는 수집품의 감정평가도 하고 있었다.

(3) 전임직원(학예직과 사무직)

어느 기구든지 마찬가지이지만 그 기구의 실질적인 활동은 전문요원들에 의해 대부분이 수행하게 마련이다. 또 이들 전문요원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충원되고 활용되는지를 파악하면, 그것은바로 그 기구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대학박물관의 경우 전임직원은 학예직과 사무직을 들 수 있고, 이밖에 보조원이 있을 수 있다. 다음의 〈表 4〉는 현재 대학박

〈表 4〉 전임요원의 구성

학예직+사무직+보조직	학예직+사무직	학예직+보조직	학예직만	사무직+보조직	사무직만	무응답
18개교	5개교	5개교	11개교	5개교	3개교	3개교

물관의 전문요원 충원실태를 살펴본 것이다.

이로써 보면 지난 82년 필자가 조사할 당시보다는 학예직을 둔 학교 수가늘어나기는 했으나(82년 19개교에서 86년 현재 39개교), 아직도 체계적으로 박물관업무를 처리할만한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즉 학예직과 사무직·보조직이 함께 임용된 대학은 18개교(36%)에 불과하고, 학예직만 있는경우가 11개교나 되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 자료정리를 담당할 전문요원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은, 우선 대학당국의 T.O배정이 없기 때문(전체의 46%가 T.O배정이 없어서 충원하지 못한다고 응답)이고, 또 전체예산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탓이기도 하였다. 다음 〈表 5〉는 대학박물관의 총예산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류해 본 것인데, 거의 모든 학교가 재원이 영세한 중에 그나마 인건비로는 10%미만을 배정한 실정이었다. 특히 이러한 전문요원의 충원정도는 국립대보다 사립대학이 훨씬 높았음도 아울러 지적된 문제점이다.

〈表 5〉 총예산중 인건비의 비중

10%이하	11~20%	21~30%	31%이상	무 응 답
37개교	4개교	3개교		6개교

결국 이같은 전문요원이 충원되지 못한 상태에서, 각 대학들은 궁여지책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예산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하여 임시동원한다(12개교)

② 근로장학생으로 활용한다(38개교)

③ 무보수로 희망학생이 도와준다(11개교)

는 것이니, 이런 임시적인 조처로서는 계속적인 박물관 인력의 양성이나 인적자원의 보유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요약하면 대학박물관의 절반이상이 체계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대체로 그 이유는 전임T.O의 배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같은 문제는 박물관 자체의 노력으로 극복되어질 수 있는 성질이라기 보다는 대학당국의 배려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전결될 과제라고 보여진다. 필요하다면 박물관의 운영과 제반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연구원의 확보를 박물관설치의 필수요건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결국 이같은 인력에 의하여 박물관 사업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4) 전임직원의 연수와 교육

한편 현재의 대학박물관은 대부분의 경우 외적인 필요가 반영될 때만 활동적이며, 본래의 기능중 중요시되는 유물(자료)의 정리 및 전시·보존 등에는 다소 등한한 상태라 보여진다. 후술하는 바처럼 박물관의 활동중 지역조사나 발굴의 경우는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도, 사회교육적인 부면에의 투자는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즉 전문직원의 교육(연수)이나 상호교류를 통한 횡적인 유대강화는 전체적인 대학박물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그 본래의 기능을 완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조사자의 이같은 생각을 설문지를 통해 제시한 결과 다소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다. 즉, 전임요원의 연수·교류의 필요성에 대하여,

① 절실하다. 21개교(42%)

② 필요하나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25개교(50%)

③ 필요없다. 2개교(4%)

④ 무응답. 2개교(4%)

라고 답하였던 것이다. 물론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으나 ②와 같이 필요성을 느끼지만 다른 활동에 비해 절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마도 전시교육의 기능을 조사 발굴보다 경시하는 일면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전임요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물어본 결과 다음 〈表 6〉과 같은 내용이 응답되었다.

〈表 6〉 전임요원 연수내용의 우선순위(빈도처리)

내 용 \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유물보존처리(39)	30	8	1
교육자료개발(26)	2	8	16
유 물 전 시(27)	4	17	6
교 육 강 화(15)	3	3	9

〈表 6〉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는 유물의 보존처리가 가장 시급한 연수교육내용으로 제시되고, 다음은 유물의 효과적 전시를 위한 교육과 교육자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조사 발굴과는 별개의 또 다른 박물관문제가 이곳에서 지적되고 있어서 전문요원의 수적인 문제와 함께 기능상의 한계도 역으로 반증되고 있었다.

이점은 앞으로 대학박물관협회가 주목하여야 할 문제요 의무인 것이다.

Ⅳ. 대학박물관의 시설

박물관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유물을 보존·전시하고 이들 자료를 통해 교육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적절한 전시공간과 유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과연 현실적으로 한국의 대학박물관 시설은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또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시설은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대학박물관이 독립된 건물로 건립된 경우가 16개교(32%)로서 82년의 9개교(21.4%)에 비하면 증가되는 추세는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도 겸용건물(25개교)이거나 강의실을 개조(8개교)한 것이 66%나 차지하고 있다. 박물관은 그 기능과 목적수행상 독특한 구조와 시설들을 요구하는 데 이처럼 임시방편으로 「단순한 공간확보」의 차원에 머물고 있음은 매우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현재의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었다.

〈表 7〉 **현존시설의 문제점**

문제점 / 불만정도	시설규모 및 면적	위치환경	전기시설 (진열장·조명)	안전시설(화재·도난)	유물보존처리시설	무 응 답
불 편·부 족	23	12	18	19	24	(2개교)
절 실 히 필 요	16	1	8	6	14	(2개교)

위의 표에서 보듯이 많은 학교가 위치나 환경, 시설규모, 보안시설, 보존처리시설 등에 적지않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규모의 협소함은 절실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점은 현재 대학박물관(응답 47개교기준)이 보유한 유물총수 380,045점(1개교 평균 8,086점) 중 실제 진열한 유물이 총 62,157점으로 1개교 평균 1,479점에 불과한 것을 보아도 쉽게 이해가 된다. 8천여점을 보유한 박물관이 그중 18%에 불과한 1,479점만을 전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설이나 규모의 부족때문인 것이다.

한편 박물관의 시설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부족과 불편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 본 것이 다음의 〈表 8〉이다. 대체로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관장실은 80~90%가 확보하고 있으나 이중 전시실의 경우는 31개교가 수족함을 표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수장고, 자료실, 작업실의 확충을 바라고 있었다. 한편 야외전시장, 세미나실, 휴게실의 경우는 거의 모든 학교가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表 8〉 **박물관 부대시설의 현황과 필요**

(50개교중 무응답 1개교)

구분 / 종류별		전시실	수장고	자료실	작업실	연구실	세미나실	사무실	관장실	휴게실	야외전시장
현 존	有	47	43	19	23	23	7	41	43	·	17
	無	2	6	30	26	26	42	8	6	49	32
不 足	절 실	15	7	3	6	2	2	·	·	·	1
	보 통	16	22	20	12	13	9	9	9	8	5

이같은 시설의 부족현상을 극복하는 길은 대학당국의 지원에 의지 할 수 밖에 없는데, 대학당국의 시설투자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는,

① 적극적이다. 1개교(2%)

② 관심을 가지고 배려한다. 20개교(40%)

③ 관심은 표명하나 실제적 배려는 별로없다. 24개교(48%)

④ 소극적이고 무관심(인식부족)하다. 4개교(8%)

라고 답하여 기대치에 전혀 못 미치는 상태임을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 시설확충의 계획을 가진대학은 10개교(이중 7개교가 독립건물을 구상)뿐이었다.

이같은 활용공간의 부족과 함께 보안 및 안전시설 전시구조물의 불비도 커다란 문제점이었다. 대개의 대학박물관이 본래부터 박물관으로 설계건축된 것이 아니었던 데에서 발생되는 이같은 문제점은 강의실개조나 개축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같은 현실은 또다른 관점에서 대학내에서의 박물관의 비중이 빈약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보다 심각한 문제이며, 이같은 여건하에서 박물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달성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여진다.

V. 대학박물관의 자료소장과 공개

현재 각 대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총 수는 40여 만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에 응답한 박물관 47개교의 유물총수가 380,045점(1개교 평균 8,086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10개교의 유물수를 추산하면 40여만점은 되리라 본다. 물론 이 자료총수는 그 내용상 수준가치가 있을 것이므로 일괄하여 논의할 수는 없을 것이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유한 유물총수 10여 만점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주목된다. 유물을 가치와 수준을 논하기에 앞서 이처럼 전국의 각 대학박물관이 어떠한 법제적 제도와 지원도 없이 많은 유물을 수집하였다는 사실은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부언할 필요도 없이 대학박물관은 이미 박물관으로서의 활동과 기능을 담당할만큼 자체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던 것이며, 단지 그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더우기 이같은 수장유물수의 증가추세와 함께 각종의 유적조사나, 발굴, 혹은 자체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전 등 괄목할 업적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인식시키는 주역으로서 대학박물관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가가 재정적으로는 지원을 못해줄 망정 제도적으로 대학박물관의 설치를 법제화하고, 이제까지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이루어 놓은 업적과 기능들을 흡수·관리할 방도를 마련할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학교수는 18개교로 총 293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국보가 12점, 보물이 61점, 지정문화재가 181점, 기타가 39점이다. 각 대학별 수장유물수는 다음 〈表 9〉과

〈表 9〉 수장유물수량

500점 이하	501~1,000점	1,001~2,000점	2,001~3,000점	3,001~5,000점	5,001~10,000점	10,000점이상	무 응 답
4	5	11	4	7	10	6	3 개 교

같은 분포를 보여준다. 실제 대학평균점 8,086을 소장한 것과는 달리 내용적으로는 이미 평균치에 미달하는 대학이 35개교(70%)나 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자료의 진열비율은 대학평균 1,479점으로 평균수장유물 18%중정도만이 진열되고 있으며, 위에서 제시됐던 전시실과 수장고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은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참고로 각 대학박물관의 진열장 수는 다음 〈表 10〉과 같은데 대학평균 진열장 수는 55개였다(응답 44개교기준).

〈表 10〉 진열장의 수량

10개미만	11~20개	21~30개	31개이상	무 응 답
3	6	11	24	6

끝으로 유물의 수장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순수하게 구입에 크게 의존하는 대학이 18개교(36%)로 가장 많고 발굴품위주와 기증위주의 경우가 의외로 각 8개교, 7개교였다.

〈表 11〉 유물의 수장경위

발굴품위주	구입위주	기증위주	발굴과구입	기증과구입	무 응 답
8	18	7	8	7	2

그러나 위의 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개 내용상으로는 구입에 의한 유물수장의 경우가 전체의 66%인 33개교(구입위주 18개교+발굴·기증과 구입반반 15개교)였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거론해야 될 것은 각 대학박물관의 예산중 유물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0~70%선에 이르고 있으며, 그럼에도 역으로 유물구입비의 부족을 토로하는 학교가 28개교(56%)나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점은 전반적인 예산부족의 현실이 노정된 것이라 하겠지만 각 대학박물관이 종합교육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만큼 수장유물이 충족되지 못한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 박물관이 수장하고 있는 자료의 공개와 소장품에 대한 홍보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박물관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자료의 수집보관과 전시에 있다고 볼 때 에는 매우 중요시되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잠깐 살펴본 바처럼 대학박물관의 평균 수장유물수는 8,086점이었으나 실제 진열하여 공개하는 유물수는 그것의 18%정도인 1,479점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전시율이 낮은 것은 학교에 따라 참고품이거나 진열(공개)상의 문제점이 있는 유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시공간 시설의 미비때문이었음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전시율을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본 것이 다음의 〈表 12〉이다.

여기서 未展示 17개교와 무응답 8개교의 경우 실질적인 전시에 문제점이 있는 학교로 파악되기때문에 위에든 평균 전시율 18%는 다소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

〈表 12〉 수장유물중 전시율(%)

木展示	50%미만전시	51~80%전시	81~99%전시	100%전시	무 응 답
17개교	20	3	2	·	8개교

라도 나머지 25개교중 20개교가가 50%미만의 유물을 공개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앞에 든 전시(공개)상의 문제점은 분명히 게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당 개관일수는 1~3일이 13개교, 4일이 3개교 5일이 8개교, 6일이 19개교로 나타났으며, 일반관람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41개교 개방, 7개교 비공개, 무응답 2개교). 연평균 관람인수는 정확하게 계산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를 내기가 곤란하나 일반인이나 타대학에 관람의 기회가 폭넓게 개방되어 있었다.

박물관을 소개하는 홍보자료로는 주로 팜플렛이 활용되고 있었고(응답 23개교중 18개교), 가이드북, 핸드북, 포스트카드가 각각 3~5개교 있었다. 특히 수장유물에 관한 홍보나 자료카드 비치는 비교적 잘되어 있어서,

① 수장품목록(도록) 발간. 21개교(42%)

② 유물카드비치. 44개교(88%)

③ 특별전(도록)발간. 11개교(22%)

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정규전시 이외의 유물공개는 특별전 혹은 공개강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20개교나 되었고, 공개 강좌만을 실시(4개교)하거나 주 1회이상 유물정기해설을 시도하는 학교도 있었다(1개교. 또 박물관을 일반수업(특히 교양국사)과 연관시켜서는,

① 박물관(전시실)에서 하기도 한다. 19개교

② 수업과 관련, 필수적으로 관람시키고 소감을 Report로 제출케 한다. 7개교

③ 수업과 관련, 관람을 권유한다. 13개교

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관람자를 위한 편의제공은 다소 불비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① 특별한 배려가 없다. 32개교

② 안내판넬(설명, 도표, 사진)설치. 21개교

③ 전시기법(입체, 복원 등)시도, 8개교

④ 음향시설(분위기, 설명). 1개교

⑤ 영상프로그램시스템. 1개교

등의 응답이 그것으로 23개교가 단지 유물을 진열하고 부수되는 편의제공 설명효과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으며, 대개의 경우 설명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예외적인 경우의 몇개 학교를 논외로 한다면 이 점은 차제에 보완시정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편의 시설과 설비의 부족도 사실은 그 이유가 예산과 부수되는 인적자원의 부족에 기인되는 것으로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시한번 제도적인 설치기준의 마련이나 재정지원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다.

Ⅵ. 대학박물관의 예산과 재정

박물관의 운영에 있어 인적자원의 확보나 전시·교육·조사·연구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예산(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지원의 정도가 박물관의 활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 대학박물관의 재정지원(예산)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부정적이다. 즉 예산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설문에 대하여,

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없음

② 부족이나 그런대로 적당하다. 20개교(40%)

③ 절대부족이나 방법이 별로 없다. 25개교(50%)

④ 부족한 예산보다는 학외활동을 통해 박물관 기능을 살리고 있다. 4개교(8%)

⑤ 무응답. 1개교(2%)

로 응답하고 있었다. 25개교가 예산의 절대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사실상 거의 모든 대학박물관(49개교)이 예산부족을 토로하고 있는 셈이었다. 더우기 주목되는 사실은 절대부족을 느끼는 25개교가 예산부족의 한계를 자체적으로 극복할 방도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주 극소수인 4개교만이 대외적인 노력으로 예산의 부족을 메꾸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외적인 활동이라는 것도 대부분은 대학박물관의 종합적인 계획으로 추진된다기 보다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용역사업의 경우가 전부여서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 점은 앞에 든 전문요원의 확보와 함께 대학박물관의 기능(활동)을 제고시키는 최우선적인 당면과제라고 보여진다.

한편 대학박물관의 총예산규모를 보면, 다음 〈表 13〉이 보여주듯

〈表 13〉 대학자체예산총규모

500만원이하	501만원~1,000만원	1,001만원~3,000만원	3,001만원~5,000만원	5,000만원이상	무응답
7개교	4개교	17개교	5개교	9개교	8개교

1,000만원~3,000만원이 가장 많으나, 1,000만원 미만의 경우가 11개교가 되는 것은 박물관운영의 영세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위의 자체예산과 대외의존예산(학술조사용역)의 대비를 표로 만들어 보니 다음 〈表 14〉와 같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예산의 부족을 대외의존으로 해결하는 4개교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대학이 부족한 자체예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잘 반영하는 표이다.

〈表 14〉 전체예산중 대학자체예산의 비율(85년)

40%이하	41~60%	61~80%	81%이상	무 응 답
2개교	2개교	1개교	37개교	8개교

다음으로는 예산의 항목별 비중과 필요정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예산 소요 항목별로 증액(혹은 신설)을 바라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왔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 빈도수가 높은 것은 역시 유물구입비와 조사연구비였고, 다음으로는 보수시설비, 인건비, 교육활동비, 운영관리비의 순이었다.

〈表 15〉 증액(신설)을 요망하는 예산항목 빈도수

(무응답 1개교)

유물구입비	조사연구비	인 건 비	운영(관리)비	교육활동비	보수시설비
28	26	8	4	9	12

유물구입비의 경우 실제 각 대학별로 전체예산상의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정도를 산출할 수 없을 만큼 대학마다 실정이 매우 다르다. 20% 이하를 유물구입에 사용하는 8개교와 81%이상을 사용하는 6개교가 특수한 경우라고 보면 50~60% 정도를 많은 대학들이 유물구입에 이용하는 실정이며,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유물구입비가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료의 구비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한 사정을 알게된다.

〈表 16〉 예산중 유물구입비의 비중(%)

20%이하	21~40%	41~60%	61~80%	81%이상	무 응 답
8개교	11개교	9개교	10개교	6개교	6개교

다음으로 부족을 지적한 것이 조사연구비였는데 이를 위의 表와 마찬가지로 작성하여보니, 의외로 19개교가 5%이하를 조사연구비가 활용되고 있었다. 이 부족한 조사비와 연구비는 사실상 대외용역등으로 보충하는 실정이어서 자체의 계획이나 집중연구를 진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表 17〉 예산중 조사연구비의 비중(%)

5%이하	6~10%	11~20%	21~30%	31%이상	무 응 답
19개교	7개교	11개교	2개교	5개교	6개교

다음으로 인건비, 운영(관리)비, 교육활동비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비중을 검토해보니 다음〈表 18〉과 같았다.

〈表 18〉 예산중 인건비 운영(관리)비·교육활동비의 비중

구 분	10%이하	11~15%	16~20%	21~30%	31%이상	무 응 답
인 건 비	37	2	2	3	·	6
운 영(관리)비	9	5	1	7	16	7
교 육 활 동 비	36	2	1	2	2	7

위의 表에서 보듯이 인건비의 경우 거의 모든 대학이 10%이하(37개교)를 사용하고 있음이 주목되는데, 이를 좀더 내용적으로 보면 이 37개교중 26개교가 아예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결국 대학박물관의 절반정도가 인건비 지출없이 사업을 수행해야하고, 또 이제까지 수행해야하고, 또 이제까지 수행해왔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운영담당자들이 얼마만큼 희생을 해왔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관리비의 경우 31%이상이 16개교로 정상궤도에 오른 대학박물관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었고, 교육활동비도 10%이하를 지출하는 대학이 36개교로 지배적이었다.

전제한 바 있듯이 예산규모와 그 운용은 박물관의 전체 활동에 결정적 요건이 된다고 볼때, 위에서 제시된 현황과 문제점들은 그대로 오늘의 대학박물관이 안고 있는 과제라 보여진다. 그리고 거의 모든 대학이 자체적인 노력으로써 재정확충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오로지 대학당국의 배려에만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특별히 재정충당방안을 강구하거나 제도적인 대학박물관 설치및 활동의 기본재원을 적절히 보장하는 조처가 우선적으로 요망된다.

Ⅶ.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필자는 대학박물관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몇가지 분야로 나누어 조사·분석하여 보았다. 이제 지금까지 분야별로 논의되고 분석된 결과들을 정리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대학박물관 설치령의 부활 : 현재 한국대학박물관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애로중 최우선적이고 가장 큰 과제는 대학박물관 설치기준령의 부활이라는 것이다.

대학박물관의 업적과 실제적인 역할, 예를들면 ① 국립박물관을 능가하는 총유물의 양 ② 각종 발굴·학술조사에 참여하는 비중 ③ 특히 각 지역사회에서 기능하는 문화중심체로서의 역할 등을 통해 대학박물관은 이제 대학과 사회가 함께 필요로 하는 존재로 명실상부한 위치를 굳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대학박물관의 존재의의나 당위성에 대하여 제도적인 지원과 보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조치의 不備는 오늘날의 대학박물관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진원이 되고 있다. 하루빨리 설치령을 부활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학박물관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현재 대학박물관이 거의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인 ① 예산의 부족 ② 시설의 부족 ③ 전문요원의 부족현상도 모두가 이같은 법제적인 설치근거가 미비되어 있는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전문요원의 확보 : 대학박물관이 제기능을 능률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이를 담당할 전문직요원(학예직)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학예직과 사무직, 보조원이 체계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대학박물관은 18개교(36%)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학들의 경우 절반정도가 T.O배정이 없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었다. 한편 전체예산중 인건비의 비율도 10%이하가 37개교(여기에 무응

답 6개교도 이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면 43개교 : 86%)나 되어 전문요원의 확보나 활용에 결정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점차 다양한 활동영역을 확보해가는 추세에서 이를 전적으로 담당할 전문요원의 양성 확보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재정적 뒷받침은 대학박물관의 활성화를 기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3) 시설확충 : 박물관의 시설은 단순한 수장고나 전시장의 역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화유물을 공개하되 이를 교육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일단 수집된 유물을 보다 안전하고 종합적으로 정리·분류·연구하여 각 유물이 지닌 모든 가치와 의미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박물관들은 독립된 건물로 설계된 경우가 16개교(32%)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강의실을 개조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위에든 유물의 보존과 처리, 체계적인 전시효과는 달성키가 어렵다. 수장유물중 겨우 18%정도를 전시한 형편으로도 알 수 있듯이 환경이나 면적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장은 어렵겠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독립건물에 전시·교육·보존처리를 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연구·조사비의 확보 :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예산액의 증가와 같은 시각에서 인식될 성질의 것이나 전문인력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해당지역의 문화유적과 자료가 체계적으로 연구·정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고려할 때, 그 핵심적 연구기관인 대학박물관이 이 부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대학박물관의 연구·조사활동들은 대부분 국토개발과 관련된 구제발굴과 문화재관리국의 계획된 조사에 참여하거나 외부용역을 받아 진행되는 것으로서 사실 지역문화의 특성과 성격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자체계획을 진행시키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실정이다. 대학박물관 예산중 조사연구비의 비중은 10% 이하가 32개교로서 거의 모든 대학이 수습조사정도에 국한되는 상태이다. 다른 기관과의 용역에 의한 조사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제한 바와같은 지역문화의 종합적 규명과는 약간 거리가 있게 마련이므로 각 대학박물관이 지역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조사비의 확충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